

금호타이어,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올해 62주년 맞은 최고 권위 국제 디자인 공모전
마제스티 9 · 엑스타 PA51 등 2개 제품 인정

금호타이어는 '2019 굿 디자인 어워드' (Good Design Award 2019, G-Mark)에서 2개 제품이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산업 디자인진흥회(JIDPO)가 주최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올해로 62주년을 맞았다.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작에는 'G-Mark'가 부여된다. 심사 영역은 제품, 공간, 미디어, 시스템, 솔루션의 5가지 카테고리로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운송장비 및 산업시설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금호타이어의 제품은 승용차용 신제품 '마제스티 9 솔루션 TA91(이하 마제스티 9)' 및 '엑스타(ECSTA) PA51'이다.

마제스티 9은 마제스티솔루션의 후속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이다. 마모성능과 눈길제동력도 개선해 안전내구성을 향상시켰고, 최적의 패턴 블록 배열 및 사운드 하모니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 소음을 줄였다. 사이드월(타이어 옆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데코레이션을 넣었고, 트레드(타이어 접지면)에는 규칙적인 기하학 패턴과 모던한 곡선 디자인을 조화시킨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엑스타 PA51은 북미 전용 사계절 타이어로 스포츠 성능과 콤포트 성능을 함께 갖춘 신제품이다. 사이드월에는 레이싱 깃발 형태를



응용해 역동성을 느끼도록 디자인이 구현됐고, 트레드에는 비대칭 디자인을 적용했다. 물의 배출을 4방향으로 유도해 배수와 마일리지 성능을 높이고 흙 깊이의 차별성을 뒤 소음과 그립 성능을 강화시켰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무는 "이번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 역량과 기술력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연구개발(R&D) 기술력을 기반으로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전통시장은 지금 온통 가을축제 중

광주 · 전남 27개 시장서 한달간 다양한 축제 진행 중

"오메, 남광주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건 처음 보는데... 차말로 좋네요..." 지난 9월 27일 저녁, 남광주시장에서 열린 제1회 수산물축제에 참여한 나이 지긋한 한 시민의 말이다.

이 행사는 남광주시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수산물 축제로, 바자라까지, 장어 율기, 참치해체쇼 등 참신하고 다양한 행사가 열려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였다.

29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 남광주시장 수산물 축제에는 3만여명이 남광주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올해 처음으로 치르는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전통시장 인지도 및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 28일에는 양동건어물 시장에서 건어물과 함께 맥주를 즐기는 건맥축제가 열렸다. 맥주는 무료로 무한리필해주는데다 안주류인 건어물도 저렴하고 구매할 수 있어, 이곳 역시 발디딤 없었다.

같은날 굽비골 영광시장에서는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팝캐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호응은 대단했다.

한 어르신은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차말로 좋소, 내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보겠소"하며 연신 감탄하며 그 여흥을 즐겼다.

전통시장이 가을을 맞이하여 온통 축제중이다.



양동시장 건어물축제

광주 ·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한달동안 27개 시장이 가을을 맞아 축제를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14개 시장이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13개 시장이 10월에도 흥겨운 축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진중앙로상가의 문화공연 및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순천씨내물상가의 패션쇼, 순천웃장의 어린이사생대회 및 장보기 체험, 완도5일시장의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가족단위로 체험이 가능한 행사가 많은 열리는 것이 특징으로, 이 가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참여시장별 행사일, 특화상품, 주변 관광지 등 가을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가을축제 전용사이트인 '시장앳(www.sijang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면 1봉지가 500원"

CU, 초저가 '실속상품 시리즈' 선보

편의점 CU는 대중적인 상품을 초저가에 판매하는 '실속상품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실속상품 1탄은 지난달 31일 출시한 'CU 실속500라면'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진하고 얼큰한 쇠고기 국물 불지라면이다. 상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CU 실속500라면은 출시 1주일 만에 5만개가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U는 CU 실속500라면을 30만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실속상품 2탄은 즉석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RTD(Ready To Drink) 커피로 오는 10일 출시한다. 'CU 실속 900커피' (200ml)는 RTD 커피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라떼와 카라멜마끼아또를 실속형 컵 타입으로 선보인다. 통상 CU에서 판매되는 RTD 커피 상품 가격이 약 2000원 수준인데 비해 'CU 실속900커피'는 900원에 불과하다. 실속상품 3탄은 'CU 실속1500 식빵'과 'CU 실속1500모닝롤'이다. 역시 오는 10일 출시한다. CU 실속1500식빵은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으로 토스트나 샌드위치로 즐길 수 있다. 1조각당 가격이 150원 수준으로 전문 베이커리 식빵에 비해 약 60% 저렴하다. CU 실속1500모닝롤은 옥수수가 들어간 담백한 모닝롤을 6개에 1500원에 판매한다. CU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상품 패키지 등 상품 외적인 비용을 최소화했다. CU 실속900커피에는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는 등 품질도 포기하지 않았다. 송재국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CU를 사랑해주시는 고객에게 보다 큰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며 "실속상품 시리즈" 등 품질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불산 국산화 테스트 완료

삼성디스플레이가 불산의 국산화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공정에 적용한다.

7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산 불산역상 불화수소의 품질과 공정 적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라인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공정에 투입될 예정인 불산은 세정공정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급선 다양화와 공급 업체의 재고 등의 이유로 전량 국산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화수소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패닐이나 회로를 원하는 모양으로 식각하거나 표면을 세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식각은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와 액체 형태의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건식과 습식으로 나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국산 불산의 생산라인 적용은 지난 7월 일본의 반도체 ·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 이후 단행한 지 3개월 만이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